

사회

혜택 많은 장애인 판정 너무 허술

사고차량 '무방작업' 32억 부당이득

동부경찰, 238대 무사고 차량 둔갑 2명 구속·12명 입건

1400명에 가짜 진단서 발급 의사 구속 광주·전남 거주자만도 120여명 달해

광주시 산하 공기업 직원 이모(30)씨는 지난해 1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한 지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각종 복지 혜택이 따르는데 현금 300만원만 내면 장애인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들기만 여덟하나 걱정도 됐지만 "진단서만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 등록이 어렵지 않다"는 지인의 말에 결국 이씨는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주고 서울 L신경외과에서 허위 장애인 진단서를 받았다. 이씨는

"LPG 차량을 구입하려고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했다.

브로커와 짜고 밀정인 사람에게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가짜 진단서로 각종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허위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한 서울 L신경외과 원장 정모(51)씨에 대해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1월

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박모(53)씨 등 브로커 20명으로부터 소개받은 정상인들에게 허위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30만~1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기간 동안 1400명에게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해 왔으며 경찰이 현재까지 가짜로 확인한 숫자는 80명에 달한다. 전체 발급 대상자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거주자만도 120명에 이르며, 20대~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도 공무원·교사·교수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 받는다.

이들이 가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는 각종 복지 혜택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6급 장애인의

로 인정받으면 지하철 요금 무료, 휴대전화 통화 35% 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소득세 공제(1인당 연 100만 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혜택에 비해 등록이 너무 쉽다는 점이다. 동(洞)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 등록과 심사를 진행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진단서 등 발급절정 및 심사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진단서 한 장만 제대로 갖추면 등록이 가능했다.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상 자치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시 병원 원무과와 의사에게 진단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서류만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로 둔갑시킨 뒤 주행거리를 조작해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29일 이른바 '무방'(무사고 작업) 작업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한 중고자동차 매매상 대표 A(33)씨 등 광주지역 중고차 매매업자와 판매상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방작업'이란 사고 등으로 교환된 부품에 떠나 먼지를 입히고 정교한 실리온 작업을 해 교환 흔적을 없애는 것을 뜻하는 중고 자동차 업계

의 속어이다.

경찰은 또 주행거리를 조작한 B(35)씨와 무방 기술자 C(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9월경부터 경기 지역의 중고차 경매장에서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 238대를 싸게 낙찰받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모두 32억원을 받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되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낙찰받은 차량에 대해 대전과 나주에서 무방작업을 거쳐 자동차 성능검사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판정받은 뒤, 주행거리도 조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대략 20만~70만원에 무방 작업을 하고, 10만원 안팎을 주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뒤 낙찰가보다 수백만원 비싸게 차량을 되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매상 대표 A씨는 자신의 처남을 대전의 무방기술자에게 보내 5개월가량 기술을 배우게 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넸으며 올해 초부터는 농촌 지역에 간이작업장까지 차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통기한 지난 제품 구별 이렇게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원들이 초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앞둔 29일 용봉동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과 무표시 제품 구별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의사가 간호조무사 성추행

광주동부경찰은 29일 직원 단합대회를 마치고 숙소로 가던 중 여직원을 불러내 성추행한 광주 모 개인병원 의사 K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예월읍 모 펜션 주차장에서 간호조무사 A(여·24)씨 등 2명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프로축구 승부조작 최고 징역 7년 구형

브로커·선수 등 39명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60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 한 브로커와 선수들에게 최고 징역 7년에서 벌금형까지 구형됐다.

청원지검 배부지 검사는 29일 청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브로커와 전·현직

선수 39명에 대해 최고 징역 7년부터 최저 벌금 500만원까지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錢主)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배팅으로 18억원 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 선수에게 징역 1년6월·추징금 2000만원, 박상욱 선

수에게 징역 2년6월·추징금 3650만원, 양정민 선수에게 징역 2년6월·추징금 2250만원, 김바우 선수에게 징역 2년6월·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준배(징역 2년·추징금 1800만원)·정운성(징역 2년·추징금 925만원)·이상홍(징역 3년·추징금 5500만원)·염동균(징역 2년·추징금 2425만원)·김형호(징역 1년6월·추징금 2300만원)·박지용(징역 1년·추징금 1425만원) 선수 등 10명 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구형 했다.

/연협뉴스

금을 갖고 튀어라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가짜 돈뭉치를 건네주고 고가의 금을 산 후 도주한 사기사건이 벌어졌다.

앞뒤만 지폐 위장 가짜 돈뭉치 주고 금방서 1500만원어치 구입 후 도주

28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40분께 광주 시 동구 충장로 5가 귀곡속 가게 에 한 남성이 들어와 10톤짜리 금 목걸이 6개를 사갔다. 이 남성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금으로 로비하려 한다"며 목 걸이를 요구한 뒤 1만원권 지폐

100장이 묶인 것처럼 보이는 돈뭉치 15개를 건네고 황급히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돈뭉치는 맨 앞뒤만 실제 지폐였을 뿐 나머지는 백지로 만들어져 있었다.

경찰은 "50대로 보였고 경상도 말씨를 썼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가짜 돈뭉치에 묻은 지문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범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한 전과자가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통사고 빅뱅 대상 검찰,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사고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상(본명 강대성·22)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상이 운전 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 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협뉴스



'금값 고추' 등 농산물 1300만원어치 슬쩍

곡성경찰, 60대 구속

곡성경찰은 29일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를 돌며 고추 등 농산물을 훔친 김모(65)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장물을 취득한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에 곡성군 결면 가정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42kg(70근·140

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 네 차례에 걸쳐 곡성·광양·고창 등지에서 고추·풀·산삼주·더덕주 등 13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현장 인근 농로에 빠진 차량 흔적을 토대로 견인업체 탐문과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보고 고창에서 훔친 농산물을 처분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세탁비 좀 올려라" 경쟁 세탁소 불질러

○광주 동부경찰은 29일 "세탁비를 낮게 받는다"며 경쟁 세탁소에 불을 낸 혐의(현주 건조물방화)로 박모(41)씨를 입건, 조사중.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에 광주 동구에 있는 세탁소 2곳과 주택 1곳에 준비한 종이와 라이터러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당시 비가 내려 재산 피해는 100만원 상당에 불과.

○박씨는 "경쟁 세탁소들이 세탁비를 낮게 받아 항의하고 경고했는데도 가격을 높이지 않아 불을 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가족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인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여성가족부 인정

2011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1년 9월 20일(화) ~ 11월 24일(목) 매주 화, 목 오후 6:00~
- 접수기간 : 2011년 9월 9일(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2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중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